

거양해운

한진에스엠과 선박관리계약

거양해운(대표 박정원)은 최근 한진에스엠(대표 김명식)과 선박 2척에 대한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했다.

한진에스엠(Hanjin Ship Management)은 선박관리부문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한진해운에서 분사된 선박관리전문회사로, 대표이사에는 해사본부 김명식 상무가 선임됐으며, 조직도 기존 한진해운의 해사본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진에스엠의 자본금은 10억원이며, 사무실은 부산 한진해운 사옥인 부산 중구 중앙동4가 한진해운빌딩 22층에 위치해 있다.

고려해운

부산-일본해서비스 개시

고려해운(대표 최영후)은 1월9일부터 니가타·토야마·아키타와 부산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개설했다.

고려해운은 현재 흥아해운과의 협조배선과 공동운항을 통해 주3회 니가타항에 기항하고 있으며,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단독 운항서비스를 개설했다.

이번 고려해운의 항로 신설로 부산-니가타간 서비스는 다른 선사를 포함해 주7회로 증편된다.

이 서비스에는 342TEU급 'Sunny Oak' 호가 투입돼 주간정요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비스루트는 부산(금·토)-아키타(월)-니가타(화)-후시키 토야마(수)-부산 순이다.

부산과 니가타간의 트래짓타임은 수출입 3일이

된다.

니가타항에는 고려해운, 흥아해운, 남성해운, STX 팬오션, 동경선박, 간바라 기선, PIL이 각각 기항하고 있다.

한편, 고려해운은 1월1일자로 임직원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임원승진) △부사장 : 박기진(朴奇鎭)(사진) △전무 : 이완섭(李完燮) △이사 : 백관선(白?善), 안익현(安翊憲)

(임원선임) △이사대우 : 문영태(文永兌)

(직원승진) △부장 : 최명옥(선박관리부 공무자재팀장), 정현용(운항관리부 운영팀장) △차장 : 김정구(자카르타사무소장), 최경용(부산사무소 영업부 영업팀), 송준재(컨테이너영업부 수출영업팀), 안응식(청도사무소장), 김병철(해사부 보험팀장 겸 해사팀장) △과장 : 김동영(부산사무소 운항부 항무팀), 정하혁(운항관리부 기기관리팀), 김서영(MIFC 상해), 이상현(컨테이너영업부 수입영업팀), 옥준호(호치민사무소장), 고 균(운항관리부 운항팀) △대리 : 권용일(컨테이너업무부 업무팀) 외 총 10명 △계장 : 임정근(재경부 비용관리팀) 외 총 11명

대한해운

지난해 당기순익 29% 증가

대한해운(대표 이진방, www.korealines.co.kr)은 1월19일 2006년 경영실적 및 2007년도 2007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2006년도 경영실적에 따르면 매출은 1조1,152억원(12억400만달러)으로 2005년



박기진 부사장

1조1,093억원(10억800만 달러)에 비해 3.69% 증가하였으며(외화 기준으로 11.16% 증가) 영업이익은 2005년 909억원(9,400만달러)에서 893억원(8,800만달러)으로 1.73% 감소(외화기준 7%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은 2005년 858억원에서 1,104억원으로 28.73% 대폭 상승했다.

이러한 실적호조의 주요 원인은 전년대비 다소 약세를 보인 건화물선 업황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이후의 건화물선 시황 상승에 따른 수익증가와 더불어 환율변동에 따른 평가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06년도 4분기만 분석하면 매출 3,273억원, 경상이익 531억원 및 순이익 511억원으로 특히 영업이익은 1-3분기 누적 434억원보다 높은 459억원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다.

한편, 대한해운은 이날 2007년도 사업계획도 발표했다. 매출은 전년 실적대비 22% 증가한 1조 3,608억원, 영업이익은 전년실적 대비 56% 증가한 1,396억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대한해운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성 있는 신규사업의 발굴 및 핵심부문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수익극대화 전략과 더불어 효율적 자산관리 및 운영과 RISK MANAGEMENT 강화를 통한 경영관리강화 전략을 경영방침으로 설정했다.

(주)봉신 용선계약 체결

(주)봉신(대표 정인현)이 삼선로직스와 총170억원 규모의 드라이벌커 용선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봉신은 1월19일 공시를 통해 2007년 2월10일

부터 2008년 10월10일까지 최소20개월, 최대22개월(용선주 옵션) 1일 용선료 3만달러, 총 170억원 규모의 14만9,391DWT급 드라이벌커 용선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주)봉신은 1월1일부로 임직원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상무 : 한상철 영업1본부 △차장 : 이용석 경영관리본부, 김성용 탱커영업본부 △과장 : 남정화 영업1본부 △대리 : 황은미 경영관리본부, 김도희 영업1본부, 성상훈 탱커영업본부

삼선로직스 임직원 승진인사 단행

삼선로직스(대표 권현철)와 삼선글로벌이 2007년 1월1일자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삼선로직스 승진인사) △상무 : 김효찬 △이사 : 천현우, 박준상 △부장 : 금부건(특수선팀) △차장 : 박태진(원료영업팀), 오형훈(보험법사팀), 이강규(해사관리팀), 정승민(선박관리팀) △대리 : 이만재(금속사업팀), 최병길(금속사업팀), 김동희(Handy 1팀), 김기우(용선개발팀), 최준홍(보험법사팀), 이상운(금융개발팀), 이규성(원료영업팀), 강선태(철강유통팀), 임동수(Mineral 2팀), 김유리(원료영업팀)

(삼선글로벌 승진인사) △이사 : 송봉용 △부장 : 김민구(울산사무소) △대리 : 봉현석(Agency 팀), 이현주(영업개발팀)

선우상선 임직원 승진인사

선우상선(대표 정대균)은 1월1일부로 임직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상무 : 해외영업본부 진성훈 △차장 : 영업1
본부 이호택 △대리 : 기획관리본부 박찬웅, 기획
관리본부 이형석, 경영관리본부 유은경

신성해운

임직원 승진인사 단행

신성해운(대표 : 박영규)은 1월1일부로 임직원
들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전무 : 신용경, 감상봉 △상무 : 김형진, 김중
국 △이사대우 : 최영규 △부장 : 허철호 △차장 :
손용학, 송병철, 김양중 △과장 : 장호성, 강병국,
신창수, 차무재, 유병섭 △대리 : 안경숙, 이지훈,
김동렬

장금상선

일본 우베항 기항 개시

장금상선(대표 정태순)은 1월말부터 한국-시모
노세키·큐슈서비스에 우베항 기항을 개시한다.
이 서비스는 140TEU급 2척이 투입돼 부산·마
산과 일본의 시모노세키, 모지, 호소지마, 이와쿠
니, 오이타를 연결하고 있으며, 부산·마산에는
주6항차 체제로 기항하고 있어 우베항에는 매주
화요일 기항하게된다.

우베항에 기항하는 루트는 SS Busan호가 투
입되고 있는 루프로, 새로운 기항지 로테이션은
부산-마산-시모노세키-우베-부산-마산-시모
노세키-모지-부산-마산-시모노세키-모지-호
소지마 순이다.

우베항 기항 개시는 1월30일부터다.

일본의 우베(宇部)는 일본 혼슈(本州) 야마구치

현(山口縣)에 있는 탄광도시로 유명하다.

한편, 장금상선은 1월1일부로 승진인사를 단행
했다.

△차장 : 홍승우 홍콩(사), 전경주 부산(사), 김
경태 방콕(사), 이승현 운영(본) 운항, 문정필 영
업(본)삼국간 △과장 : 유종훈 마산(사) △대리 :
김태용 광양(사), 문준영 부산(사) 수출, 윤기방
영업(본) 수출, 황수경 운영(본) 운항, 유제호 관
리(본) 총무 △계장 : 이근호 평택(사), 이상곤 광
양(사), 차우진 영업(본) 수출, 최용성 영업(본) 삼
국간, 함희정 관리(본) 재무, 신경혜 부산(사) 수
출, 이지현 부산(사) 수출, 전인숙 영업(본) 수출,
최종광 운영(본) 전산

KSS해운

임직원 승진인사 단행

KSS해운(대표 장두찬 회장)은 1월1일부로 임
직원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이사대우 : 김종석, 이종태 △1급을 : 박문호,
이대성, 김돈영 △2급갑 : 변도수, 이의성 △2급
을 : 진정임 △3급 : 박찬도 △4급 : 이용규, 박은
희

SK해운

장기근속자에 대한 수상식

SK해운(대표 이정화)은 1월1일부로 정기 임원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상무 : 강을구(SM 담당임원), 윤희성(별크선
영업담당 임원)

한편, SK해운은 1월2일 서울 본사에서 시무식
을 갖고 장기근속자에 대한 수상식을 가졌으며,

이정화 사장은 신년사를 통하여 해상직원 및 지방과 해외 근무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2007년 한해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했다.

STX팬오션

임직원 승진인사 단행

STX팬오션(대표 이종철)은 신임 상무에 윤민수 씨를 위촉하여 2월1일부로 일본법인장으로 임명했으며, 서충일 상무를 전무로 승진시키면서 PMO겸 미래경영 TFT 팀장으로 임명했다.

또한 정갑선 전무를 2월1일부로 미국법인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난 1월1일과 8일 2007년도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선임)△상무 : 윤민수(일본법인장)

(승진)△전무 : 서충일(PMO 겸 미래경영 TFT 팀장 임명), 이일연(영국법인장 임명), 배선령(중국법인장 임명) △상무 : 변희욱(운항기술실장 임명) △부상무 : 김혁중(정기선영업본부장 임명), 박현목(부정기선영업2본부장 임명), 우병륜(재무관리실장 임명) △부장 : 김정택, 전주식, 구진용, 강봉수, 장종빈, 양진호, 최재용

(이동 및 보직변경)△변용희 전무 : 관리본부장 △이상문 전무 : 특수선영업본부장 겸 자동차선 영업실장 △추성엽 전무 : BULK영업 담당 △정갑선 전무 : 미국법인장 △송영문 상무 : 본사부 △김태정 상무 : 인력개발실장 △신동선 부상무 : 본사부

한편, STX팬오션은 지난해 12월21일 조선호텔에서 (사)한국 CFO협회가 주최하는 '2006 한국 CFO대상 및 한국 재무혁신기업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이 상은 재무실적, 경영투명성, 구조조정 및 경영정보시스템 혁신 부문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업과 CFO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STX PAN OCEAN은 성공적인 싱가포르거래소(SGX) 상장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 및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 투명성 제고, 전략적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 및 IT인프라 혁신으로 비상장기업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변용희 전무가 비상장기업부문 최우수 CFO상을 수상했다.

한진해운

박 사장 해외현장 경영

한진해운(www.hanjin.com) 박정원 사장이 1월16일부터 9박 10일의 일정으로 뉴욕, 시카고, 시애틀, LA 등 미국 지역그룹(본부)과 지점 방문 길에 오르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외 현장 경영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해운항만 관계자와 주요고객들을 만나는 한편, 미주 지역의 작년 사업 성과를 재검



박정원 사장

토하고 올해 시장 상황과 영업 전망, 주요 사업 방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현지 주재원들을 격려하고 지난해 말에 도입된 책임경영체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그에 따른 업무 환경 변화에 대한 조속한 적응도 당부했다.

시애틀과 롱비치에서는 전용 터미널 운영 시찰과 항만 당국자들과 면담 예정이며, 올해 해외 컨테이너 터미널 사업의 본격적인 진출에 따른 영업력 확대와 효율적인 터미널 운용 방안들도 보고받는 등 현장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매년 연말연시에 전세계 해운 시장 동향과 각 지역별 영업상황 점검차 주요 해외 지점소를 직접 방문해 왔다”며, “베트남, 싱가포르 등 동남아 지역 과 북유럽 또한 현장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사장은 해운경력 35년의 국제 영업 전문가이자 국제적 감각과 전략 마인드를 겸비한 글로벌 경영인으로, 평소 직접 해외 현장 방문을 통해 각 지역의 영업 강화를 독려하고 해외 주요 고객을 방문하는 등 전세계 해운시장의 흐름을 파악해 왔다

현대상선

2007년 사업계획 발표

현대상선은 1월18일 이사회를 열고 2006년 경영실적 및 2007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상선이 이날 발표한 2006년도 경영실적에 따르면, 매출은 4조7,290억원(49억4,900만달러)으로 2005년 4조8,456억원(47억100만달러)에 비해 2.41% 감소했으며(외화기준으로 5.28% 증가) 영업이익은 2005년 4,664억원에서 971억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2005년 3,864억원에서 1,140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2006년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이유는 주력인 컨테이너선 부문에 있어서 대형선 투입에 따른 세계 해운시장의 선복과잉과 이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예상보다 운임이 전반적으로 약세였으며, 2006년도 계속된 유가의 상승으로 비용상승 요인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호황세를 이어온 2005년 실적과 2006년 실적을 비교해 볼때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커 보였다는 평가이다.

하지만, 현대상선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재무상태는 더욱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과 비교해 부채는 3조4,491억원으로 불과 1.75%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자산은 14.98% 늘어난 5조5,353억원, 자본은 46.46% 증가한 2조86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237.98%에서 165.33%로 축소됐다.

한편, 현대상선은 이날 2007년 사업계획도 발표했다. 매출은 2006년 실적에 비해 7.5% 증가한 5조816억원(55억5,400만달러, 외화기준으로 2006년 실적대비 12.22% 증가), 영업이익은 17.3% 증가한 1,139억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현대상선은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주력인 컨테이너선부문에서 2007년 목표 수송량을 전년보다 11.57% 증가한 241만TEU를 수송기로 확정했으며, 아시아-유럽항로에 6,800TEU급 컨테이너선 3척과 아시아-미주동안항로에 4,700TEU급 컨테이너선 3척을 신규로 투입하여 선대경쟁력을 강화하고, 현대상선이 소속되어 있는 ‘뉴월드 얼라이언스(TNWA, The New World Alliance)’와의 제휴관계를 돈독히 하는 한편, ‘그랜드 얼라이언스(GA, Grand

Alliance)와의 협력 관계도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증대를 통해 원가경쟁력을 제고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별크선 부문에 있어서는 우선 유조선 영업은 장기수송계약으로의 전환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에 나서며, LNG선 영업은 해외 LNG 수송권 확보를 더욱 강화하고 지난해 새로 진출한 LPG선 영업은 보다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구축에 힘쓰며, 부정기·일반화물선 영업도 주요 화주와 전용선단의 장기수송계약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2007년도 투자규모는 현재 건조중인 컨테이너선을 비롯한 선박에 4,275억원, 컨테이너박스 등 기기에 1,693억원, 항만 등 기타투자에 615억원 등 총 6,58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현대상선 노정의 사장은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주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2006년 연간 실적이 주주여러분 기대에 다소 못미칠 수 있으나, 좀 더 분명한 사실은 현대상선이 지향하는 초우량 해운물류기업이라는 목표에 이르기 위해 현대상선 임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여 한발 한발 묵묵히 내딛고 있다"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2004년 이래 유지한 흑자 경영기조를 2007년에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상선이 2007년 정기인사에서 신임 부사장에 박재영 전무와 신용호 전무를 임명하는 등 108명을 승진발령했다. 현대상선 안홍환 부사장은 12월 초에 현대엘리베이터 부사장으로 전보됐다.

△부사장 : 지원본부 박재영 전무, 해사본부 신용호 전무 △부장 : 미주수출부 김주안, 구주수출부 정세진, 일반화물선부 김종하, 총무부 손용찬,

회계부 김만태, 시카고지점 김정태, 닝보지점 한명동 △부장대우 : 미주영업부 김정범, 아주영업부 홍민균, 영업기획부 박기훈, 운항부 손부민 김영웅, 항만물류부 한재민, 유조선부 정동진, 총무부 문태희, 재정부 김한수, 안전관리실 박운용, 미주본부 신정환, STI 박인, 구주본부 이창익, 네덜란드법인 조원기 △차장 : 미주영업부 이상철, 영업기획부 정현철, 미주수출부 박재현, 아주수출부 윤용식, 수입부 이재욱 김찬형, 영업부 강연웅 김상락, 부정기선부 이병은, 일반화물선부 김주관, 총무부 권기선, 회계부 윤상호, 재정부 이동호, 미주본부 김양평, HASA HQ 신영식, 애틀랜타지점 조명계, 피닉스 RCSC 이재준, 구주본부 김충국 임훈, 독일법인 윤희석, 동서남아본부 최찬영, 중국본부 박상희 △과장 : 미주영업부 최기우 서승환, 아주영업부 송석현, 전략개발부 김재호, 운항부 유상혁 송근찬, 기기관리부 장원준, 항만물류부 장원철, 미주수출부 송일호, 아주수출부 배성철, 운영부 김기용 변승효, 영업부 박승일, 업무부 배기득, 용당 CY 오승협, 일반화물선부 신임숙, 회계부 정연국, 심사부 김태근 박재홍, 재정부 정현목·김요한, 보험법제부 노용석, 안전관리실 오승훈, 해무부 강은수

홍아해운

직원 승진인사 단행

홍아해운(대표 이윤재 회장)은 1월1일 부로 총 19명의 직원들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차장 : 이동일(탱커팀), 한석우(탱커팀) △계장 : 강민승(회계팀), 김동희(전산팀), 김세일(수출영업팀), 김주양(수출영업팀), 박지윤(운항팀), 박진우(수입삼국간영업팀), 송정숙(영업팀), 이종



관(탱커팀), 조연희(컨테이너관리팀), 황석현(수출영업팀) △4급 : 김민경(수출영업팀), 박정규(업무팀), 이경원(인천CY관리팀), 이동희(영업팀), 정보미(업무팀), 조성희(수출영업팀), 주영선(해사팀)

목포해양대학교 보직교수 인사발령

목포해양대학교(총장 신철호)는 1월1일자로 교육공무원 보직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해양시스템공학부 부교수 김우항→산학연기술�지원센터장 △기관시스템공학부 부교수 이돈출→창업보육센터장

부산항만공사 이갑숙 신임사장 취임



부산항만공사(BPA) 이갑숙 사장(전 한국선급 회장)이 1월23일 오전 9시 중구 중앙동 BPA 사옥에서 BPA 항만위원회 관계자와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집무에 나섰다.

신임 이 사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최근 부산항

이 처한 위기에 시대적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산항은 단순한 항만의 차원을 뛰어넘어 21세기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이 되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BPA의 새 선장으로서 부산항이 동북아 물류중심을 구현하는 국가적 비전의 견인차이자 온 국민의 희망과 사랑이 담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며 취임 소견을 밝혔다.

이 사장은 BPA 2대 사장으로 향후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프로젝트인 북항 재개발사업과 신항 건설, 배후물류단지 조성 및 부산항 물동량 확보 등 산적한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다.

관련 업계는 항만물류분야에서 30여년간 일해 온 이 사장이 BPA 사장으로 부임함에 따라 부산항 현안 사업이 더욱 탄력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사장은 BPA 항만위원회가 지난해 말 실시한 BPA 2대 사장 공모에 응모, 해양수산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1월22일 노무현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았다.

신임 이 사장은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고와 영국 웨일즈대를 졸업했으며 1975년 행시 17회에 합격,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등을 역임한 뒤 2003년 4월부터 한국선급 회장으로 재직해 왔다.

인천항만공사 포트켈랑항과 자매항 결연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서정호)와 말레이시아 포트켈랑항만공사(PKA, 사장 다틴 파두카)가 1월 25일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자매항



결연식을 갖고 양 항만간 교류 협약에 관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자매결연 행사는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고 아시아포워더포럼의 공식행사에 포함돼 인천항을 알리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항만공사가 출범한 이후 해외 항만과 자매항 결연을 맺은 것은 지난 2005년 중국 엔타이항에 이어 두번째다.

인천항과 포트켈랑항은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양 항만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 연구 △정보 교환 △기술 지원 △인적교류를 통한 교육 훈련 △교역량 확대 등 총 5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이번 자매결연으로 인천항과 포트켈랑의 교역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정호 사장은 축사를 통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포트켈랑항과 자매항 인연을 맺게 돼 기쁘다. 양 항만이 동아시아 지역의 거점항만으로 발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인천항과의 교역 물동량이 중국, 홍콩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국이다.

2006년 한해동안 총 5만5,000TEU의 화물이 말레이시아와 인천항을 오갔다. 포트켈랑항은 이 가운데 1만6,570TEU의 물량을 처리했다.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약 40km 떨어진 상업 중심지에 자리 잡은 포트켈랑은 전 세계 120여 개국 500여개 항만과 교역하고 있으며 2006년 632만TEU의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했다.

PKA는 지난 1963년 설립되어 항만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 현재 포트마스터 플랜2010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까지 840만TEU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항만 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선급

말레이시아 정부대행검사권 수입

한국선급은 지난 1월17일 말레이시아 해운국본부에서 개최된 말레이시아 해운국 및 선급간 회의에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선급에게 검사권을 위임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ABS(미국선급), BV(프랑스선급), DNV(노르웨이선급), GL(독일선급), LR(영국선급), NK(일본선급) 등 6개 선급에만 검사권을 개방한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근에 한국선급의 기술력과 검사 품질을 높이 평가하여 한국선급에게도 검사권을 부여하였으며, 이로써 한국선급은 말레이시아 국적선박에 대한 신조선 검사나 국적변경에 따른 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매 5년마다 갱신하게 될 금번 정부대행검사권의 내용은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 Load Line(만재흘수선), ISM(국제안전관리규약), ISPS(국제해상보안규칙) 등의 검사와 증서를 발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원성자료와 Cargo Securing Manual(화물고박지침서), SOPEP(선상기름오염

비상계획서), P&A Manual(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승인 등 협약 전반에 관한 정부대행 검사권을 위임받았다.

현재 43개 국가로부터 정부대행 검사권을 위임받은 한국선급은 앞으로도 더 많은 주요 국가들로부터 검사권을 수입 받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여 선주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계적 수준의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제4대 박찬조 원장 취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1월10일 용당동 본원에서 제4대 박찬조(57·朴贊照) 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유명윤 원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원장 공모에서 4명이 공모하여 구랍 28일과 29일 면접과 선임이사회를 거쳐 박찬조 해기사협회장을 4대 원장으로 선임하였다.

3년간 임기에 들어가는 박찬조 원장은 1974년 한국해양대학교(기관학과) 출신으로 1976년부터 8년여 동안 영진해운 등 해운업체에서 승선생활과 육상근무를 하였다.

그후 전국선원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및 한국

해기사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30여년 동안 해양업계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었으며, 선상생활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선 인물로 평가돼 왔다.

1980년대 초 현재의 연수원을 발족시킨 모태 역할과 기능을 했던 해기사협회 회장 출신이 원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관련업계에서는 해양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 해양인력 양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물이 선임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찬조 원장은 취임식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체제 구축을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의 품질을 제고토록 하자”고 밝히고 교직원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방제장비 비축기지 준공식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사장 이용우) 마산지부는 2007년 1월 23일 거제시 장승포 여객터미널 부두에서 김영환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최남용 통영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한 관련업·단체장 및 소속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제장비 비축기지 준공식’을 거행했다.

준공되는 방제장비 비축기지는 건축면적 261㎡(약 80평)에 지상 1층의 일반 철골구조로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신축되었으며, 지부 보유 기자재(유회수기 4대, 오일뿔 1,400m, 유흡착재 1,350kg, 유처리제 3,946리터) 일부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및 통영해양경찰서 보유 기자재 일부가 함께 보관됐다.

그 동안 고가의 방제장비 및 약·자재를 여러 개의 컨테이너에 분산 배치해오던 것을 비축기지의 준공으로 통합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특히

천장에 방제장비 이동용 호이스트(용량 : 2톤)를 설치하여 기자재의 반출입과 유지·관리상의 효율성을 기하게 됐다.

이로써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은 인천, 군산, 동해와 더불어 4개 비축기지를 건설하였고, 앞으로 매년 2개의 비축기지를 추가로 건설한다. 방제조합은 건설된 비축기지를 활용, 방제장비 및 약·자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유지를 하게 되었으며, 방제장비 등은 우수와 설해로 인한 풍화를 받지 않아, 내구연한이 연장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기지에서 오염사고 지역으로 방제장비를 신속히 수송하여, 앞으로 더욱 완벽한 방제대응태세를 유지하게 되어 우리나라 해양오염사고시 적극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Korea P&I Club

일괄인상률 업계최저 3.5%

Korea P&I Club(회장 이운재)은 2007년도 보험료에 대해 ‘3.5%’ 일괄인상(General Increase) 적용방침을 밝혔다.

최근 업계동향을 보건데, EU가 보험 및 금융사의 지급여력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안(Solvency II)을 제정함으로써 유럽 내 보험사는 2010년부터 동 법안에서 규정하는 지급여력을 충족해야 함에 따라 그 부담이 고스란히 선주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미국의 해양오염방지법(OPA90)의 배상책임한도

액 증가, 1996년 해사채권협약(96LLMC)의 채택 증가와 아울러 국내 해상법 개정안에도 선주책임제한금액의 인상내용을 담고 있는 등 선주의 책임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해외 P&I 클럽은 개별 이재율에 따른 인상과 재보험료 인상분에 따른 인상과 더불어 5.0% ~ 10.0%의 일괄인상률을 발표하였다.

국내외적으로 운송인 및 선주의 법적 배상책임의 증가는 Korea P&I Club(KP&I)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 유일의 P&I 보험자이며 철저한 비영리조직으로서 회원사의 경영활동을 지원해야하는 입장이라는 인식하에 KP&I는 일괄상률을 업계최저인 3.5%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비록 국내외적으로 몰려드는 역경속에서도 최저 일괄인상률을 택한 이번 KP&I의 결정은 국내 선주에 의한 국내선주를 위한 P&I 클럽으로서 가입선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해외 클럽의 국내 선사를 상대로 한 요율인상 움직임에 대하여 견제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Korea P&I Club은 1월1일부로 임직원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상무: 문병일 △차장: 엄성호 △과장: 홍현민
△대리: 김동근, 임수민, 심미영, 정지연

